TRICITY KoAm 트라이시티 코암

Korean American

트라이시티한인장로교회 TRI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발행번호 4 **겨울 2015**

KoAm 칼럼– 임성철 목사

겨울산

언제부터일까, 겨울의 산이 좋아진다.

계절마다 산의 모습이 다르다.

봄의 산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솜털처럼 부드럽다. 도화지에 파스텔로 색을 입히듯,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색으로 옷을 입는다. 간간히 피어오르는 꽃들은 여인의 화려한 스카프를 산 위에 걸쳐 놓은 듯하다.

여름의 산은 단순하다. 모두가 초록색으로 옷을 입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 많은 생명을 발견한다. 이 곳 저 곳에 자신의 한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생명들의 움직임이 있고 생성하는 기운이 있다.

가을의 산은 생각하게 한다. 언제 그럴까 하듯 끝없고 단순한 녹음이 색을 입기 시작한다. 다른 색으로 변해가며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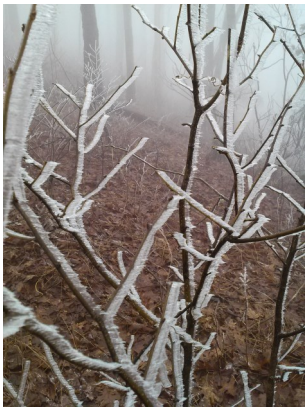
겨울의 산은 다 보인다. 먼 산을 바라보면 마치 사람 피부의 털을 보는 것처럼 다 보인다. 산길을 걷다보면 다른 계절에 볼 수 없었던 답답함을 풀어 준다. 멀리 보이는 산이 있고, 호수가 보인다. 그리고 등선을 따라 닿는 곳에 마을이 보인다. 겨울산은 이처럼 텅 빈 것처럼 보이나 꽉 차 있는 것이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품고 있는 것이 겨울이다. 훤히 보이는 산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산인 것이다.

살이 아린 추위에도 꿋꿋이 견딘다. 마치 죽어있는 듯하고, 금방 부러질 듯하지만 자신의 온기를 유지하고 끈질기게 생명을 머금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봄을 준비한다. 땅 속에서 자신의 영양분과 기력을 끌어모아 두어 또 다른 풍성함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겨울의 숲



겨울 이미지

목차

감사하는 마음 2

한인회 소식 2

교회 소식 2

신앙 기고 3

선교지 소식 3

추천도서 4

그림으로 보는 명상 4

Image from Google

한인회 구정 모임 장소

부흥회 포스터

감사하는 마음-서갑식

딱 정월 초하루 다음 날 금요일 이른 오후였다. 필요한 물건들을 주섬주섬 차에 싣고 볼일이 있어 나가려고 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이상하게도 두어번 시동이 걸렸다 꺼지곤 했다. 이 주동안이나 차를 타지않고 너무 오래 세워놔서 그러나보다 생각하고 평상시처럼 차를 후진으로 차고에서 빼냈고 어디나 졸졸 따라 다니려는 우리 집 강아지 벨라를 차에 막 실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물이나 기름같은 액체가 차 뒤 머플러 부근에서 심하게 내품기고 있지 않는가. 기름 냄새가 조금 나는 것으로 보아 휘발유가 새는 것 같기도 했다. 개스통이 터졌나 겁도 났다. 차에 불이 날 위험이 있어 엔진을 급히 껐더니 새는 것이 곧 멈추었다. 정초부터 운수가 정말 없다고 생각했다. 정초에 흔히 나오는 나의 습관적인 불평이다. 어떻게하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웃 집 JD가 막 차를 타고 집을 나가려 하고 있었다. 염치 무릅쓰고 JD에게 가서 내 차에 개스가 새는 것 같으니 좀 와서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는 서슴치않고 내 차로 와서 검사를 하더니 개스라인이 터진 것 같다고 하며 당장에 자기가 알고 있는 미케닉을 불러 차를 고치게 하겠노라 쉽게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잠시 걸더니 친구 미케닉이 바빠서 지금은 못오고 나중에 오겠다 한다며 그가 올 수 있을 때 내게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JD의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걱정스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전화가 오지않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인근 서비스센터까지 차를 가지고 가지? 운전을 하면 불이 나서 차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그렇게도 못하고. 그럼 차를 토우잉해야 할텐데. 오늘 고치지 못하면 내일부터 주말이라 문을 여는 서비스센터도 없을 것이고. 참 난처하게 되었다. 한나절이 지나 이윽고 JD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너무 반가웠다. 자기가 아는 미케닉이 오늘은 바빠서 올 수 없고 다음 주 월요일에나 올 수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차를 오늘 토우잉해 오면 오후 늦게쯤 고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주말에 차가 필요하고 또 오래 기다리는 것이 싫고 해서 토우잉카를 당장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이윽고 토우잉카가 왔고 차를 JD 의 친구 정비소에 가져가 저렴한 비용으로 말끔히 고쳤다. JD와 그의 미케닉 친구가 정말 고마웠다.

비록 사소한 해프닝이지만 정초에 일어난 이 일에서 나는 평범한 지혜를 배우고 감사했다. 우선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새삼 느꼈다. 성급한 마음에 남을 의심하고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리다보면 나중에는 그 경솔했던 마음이 후회스럽고 창피하게까지 느껴질 때가 많다. 결국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건데 괜히 고민하고 안달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평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생각나름인 것 같다. 처음에는 내가 헌차를 너무 오래 써서 그래, 하필이면 오늘이야 할 일이 많은데, 더구나 정초에 등등 불평스런 마음만 들었다. 그러나 안전한 차고에서 일어났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 휘발류가 달리는 하이웨이에서 그것도 뜨거운 머플러 위로 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차는 불이 붙고 폭발했을 수도 있었다. 그 위험을 피하고 크게는 우리집 강아지 벨라 생명까지 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나는 정말 정초부터 운이 좋은가 보다. "이 세상엔 불평할 게 하나도 없다 항상 신에 감사하라"는 어느 나이든 여 가수의 말이 생각난다.

한인회 소식

트라이시티 한인회 구정모임

일시: 2015년 2월 28일, 3-9 pm

장소: Steel Creek Park, Bristol, TN, Park Lodge

준비물: 각 가정 음식 두가지,

임원은 밥과 음료수 추가.

연락처: 서갑식 회장

423-288-6279(h)

kabseo@gmail.com

교회 소식

브리스톨에 위치한 트라이 시티 한인 장로교회에서 봄 맞이 부흥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3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3일 동안 5번의 집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는 LA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고 목사님께서는 이 지역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사례비도 받지 않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교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봉한 전단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기고 - 허림 권사

감사와 기쁨의 눈물 (두 번째 글)

하용조 목사님 말씀 중에 '어디에 있던 어디를 가든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고 이년동안 연예인 이십명에게 매일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곽규석 목사님, 구봉서 장로님, 신영균 장로님, 고은아 권사님, 윤복희 권사님, 김희자(코메디), 정훈(가수), 곽정환 장로님(고은아 남편), 오승일 목사님, 방은미 사모님, 김희숙 전도사님, 김정자 (성우, 선교사) 유준 장로님, 김홍철(가수), 이종영 목사님(가수), 이영후 장로님(탤런트), 서수남 장로님, 강효실 권사님, 최성찬 성가대 지휘자.

1976년부터 1978년, 성경공부 하는 그 시간에 모일 때마다 어느 분은 분장을 한 채로, 또한 의상을 입은 채로 달려와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서로 보고 싶어 하면서요. 그 놀라운 성령의 힘으로 연예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경 책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 몰랐던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택씨를 타고 집 앞까지 안가면 "집 앞까지 가요"하며 큰 소리로 화를내던 그 분께서 성경공부를 하면서부터 택시 기사가 "못가요 그 위에까지, 내리세요" 라 말하면 "그래요, 오늘 당신 하나님 덕 본 줄 아시요" 속으로는 화가 나는 것을 꾹 참고 집 앞까지 걸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야, 개 xxx" 욕만하던 그 목소리가 성경공부를 한 뒤, "미안해, 그 전에 욕 했던 것, 정말 미안해" 그러며, 내 말투가 나도 모르게 달라졌다고 자기 자신도 놀랬다는 것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어느 날 조선호텔 옆에 있는 포시즌 레스토랑, 그 당시 대학 가수로 더 유명했던 정미조도 그 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른 통기타 가수들도..., 그 중에, 저도 그 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의 노래 할 시간에 무대에서 기타를 들고 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갑자기 '은 과 금 나 없어도' 복음 찬양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술을 먹던 분들이 여기 저기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신이 나서 더 크게 불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생각했죠. 술 집에 예수 믿는 분들도 오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하하하...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찬양을 불렀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기뻤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귀한 말씀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해 주셨습니다.

서로 서로 미워했던 마음도, 질투 했던 마음도, 점점 햐얀 옷을 입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감사와 기쁨 또한 진정한 사랑, 사랑, 사랑…...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전서 13장 중에서)

곽규석 장로 임직식 (1980 년 6월 29일) 축하 케익

하용조 목사(왼쪽), 신영균 장로, 조복화 (곽규석목사 사모), 곽규석 목사.

선교지 소식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Kyle Wilson(카일 윌슨) 선교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듀크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지금은 멕시코 유카탄에서 선교사로 활동합니다.

TRICITY KoAm 트라이시티 코암

겨울 2015

트라이시티한인장로교회 TRI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편집인: 임성철 목사

Editor: Seong Im
2109 Carolina Ave.
Bristol, TN 37620
www.tricitykpc.org

전화: 404-683-2565

Email: isaacim86@gmail.com

기고와 보내는 방법: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글이 있으면 편집인의 주소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람 주소 TO;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 추천

예일대, 동경대, 하버드 대학원, 대만 국립대, 서울대 등 세계 명문대를 졸업한 젊은 미국인 하버드 박사가 오랫동안 살면서 느낀 진지하고 솔직한 에세이. 그는 한국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말한다. 어려운 말보다는 평범한 언어로서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이만열)

출판사: 노마드북스, 290 페이지

그림으로 보는 명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같은 땅에 살면서 다른 문화와 정부를 가지고 있다. 전혀 다른 이 두 문화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을 일으키고 있다. 과연 이 두 다른 문화는 함께 같이 살아 갈 길이 없는 것일까?